

## 번역자 연구 동향 고찰: 국내외 번역 학술지를 중심으로\*

김 자 경  
(이화여대)

### 1. 서론

번역자)를 중심에 놓고 번역 현상을 다루는 ‘번역자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 학자가 지적한 바 있다(Chesterman 2009; Dam & Zethsen 2009; Pym 2009; 강지혜 2010). 체스터만(Chesterman 2009: 20)은 홈즈(Holmes 1972)의 번역학 지도가 번역 주체보다 텍스트를 중심에 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번역 주체에 더 무게 중심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강지혜(2010: 21)는 다양한 변수 중 하나인 번역자가 아니라, 번역이라는 행위의 핵심 주체로 번역자를 다

---

\* 본 연구는 2017년 4월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현재 번역학계에는 번역가, 번역자, 번역사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학회 발표 당시 이영훈 교수의 ‘번역사’는 전문 번역사, ‘번역가’는 문학 번역가의 좁은 범위에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번역자’가 더 넓은 범위의 번역 주체를 지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한 용어라는 조언에 따라 ‘번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번역자 위주의 번역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를 ‘번역자 연구’로 설명하고자 한다.

루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핼(Pym 2009: 23)은 텍스트보다 번역자를 중심으로 번역 현상을 논의하면 다섯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원천문화와 목표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빠지지 않고 양극단의 가운데 지점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상호문화(professional interculture)를 탐구할 수 있다. 둘째, 규범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고민을 거듭하여 선택에 이르는 번역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번역자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도 탐구할 수 있다. 넷째, 번역자가 문화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존재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번역자 연구는 ‘상호문화 연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번역학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다섯째, 주관성과 소통에 대한 질문을 끌어낼 수 있다. 번역자가 문화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번역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 왔는지는 의문이다. 댐과 제첸(Dam & Zethsen 2009: 7)은 번역학이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번역 결과물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에 비해 번역 과정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생산하는 주체인 번역자에 대한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번역자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번역 학술지에 실린 번역자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분석 대상과 방법

### 2.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 번역 전문 학술지에 실린 번역자 연구 논문이다. 출판물,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번역 전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로 된 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국제 학술지의 경우에는 *Babel*, *Meta*, *Perspectives*, *Target*, *The Translator*에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ITT는 2007년부터 발간되었으므로 시기가 맞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논문 수집을 위해 국내 논문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에서 2017년 4월 15일 현재 ‘번역가,’ ‘번역자,’ ‘번역사,’ ‘번역 주체,’ ‘역자,’ ‘번역 행위자’ 등을 검색어로 하여 일차적으로 논문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검색어 범위의 문제로 빠진 논문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학술지에서 발간된 논문 전체를 모두 다시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 명사가 사용되어 검색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고찰」(김효중 2006), 「루쉰의 번역활동과 번역방법 연구」(손지봉 2014) 등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해외 논문의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모든 논문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논문 제목과 키워드, 초록을 확인하고, 제목이나 소제목에 ‘translator’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논문 전체를 읽은 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키워드, 초록 등을 살펴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의 범위는 ‘인간 번역자(human translator)’에 중심을 둔 연구이다. ‘번역 주체’는 넓은 범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먼디(Munday 2012: 229)는 번역자뿐 아니라 의뢰인, 문학 에이전트, 텍스트 생산자, 감수자 및 에디터를 모두 번역 관련 주체로 보고 있으며, 핼(2007: 745)은 사람 외에 제도까지 주체의 범위에 넣고 있다. 따라서 번역 주체는 인간 번역자에서부터 번역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체, 그리고 인적(人的) 범주를 벗어나 제도적 차원에서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번역을 하는 주체이자 인간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때 번역자의 전문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방향의 연구는 제외하였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로,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이승재 외 2001),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연구」(이상원·이향 2004),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신지선 2007), *Translator Associations* (Pym 2014), 「국내 공공번역 실태와 표준화 현주소」(김훈밀 2015), 「통번역산업의 시장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강수

정 2015) 등은 제외하였다. 번역자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지만 개별 번역자보다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별도의 메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둘째, 번역자를 제외한 다른 관련 주체를 중심에 둔 연구로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김순미 2012), 「번역행위자간 소통 문제 연구」(곽중철·박지영 2013), *Professionals and Translation in a 'Literary Translation System'* (Liping 2016) 등 번역자를 둘러싼 다른 주체, 예를 들어 독자, 의뢰인, 비평가 등을 중심에 둔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교육적 관점의 연구이다. 예를 들어, *Developing Trainee Translators' Strategic Subcompetence through Metacognitive Questionnaires* (Fernandez & Zabalbeascoa 2012), 「학부 번역 전공자의 교정 교열에 대한 사례 연구」(이상빈 2013), 「번역 학습자의 'voice' 선택과 개입: 법률텍스트 '전문용어' 일한번역 분석을 중심으로」(박미정 2013), *Terminology as a Key Competence for Translators* (Gerhard 2016) 등은 제외하였다. 교육적 관점에서 번역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번역 과정 연구는 번역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번역자 연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지만, 번역자를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탈개인화된 블랙박스(depersionalized black box)”로 다룰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Dam & Zethsen 2009: 8). 이처럼 번역 과정 연구가 텍스트 뒤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의 요건을 적용하여 국내 논문 40편, 해외 논문 59편을 추출하여 총 9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2 분석 방법

이와 같이 추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와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선 연구 주제 분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세 가지의 관련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체스터만(2009: 19)은 인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번역자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인지적 맥락에서 번역자의 의사결정 과정, 감정, 태도, 사회적 맥락에서 번역자 네트워크, 지위, 작업 절차, 문화적 맥락에서 이데올로기, 윤리, 역

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호정(2013: 238-239)은 국내외 번역 학술지의 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7가지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한 주제가 번역자 연구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항(2011: 351-352)은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 Chesterman 2002)의 설명을 바탕으로 번역학의 12개 연구 분야를 분류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연구 분야 중에서 번역자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 참조하였다.

〈표 1〉 연구 주제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관련 선행 연구

관련 선행 연구	분류	세부 내용
Chesterman (2009: 19) “Sketch of Translator Studies”	인지적(Cognitive)	정신 과정, 감정, 태도 등
	사회적(Sociological)	네트워크, 제도, 지위, 작업 과정 등
	문화적(Cultural)	이데올로기, 윤리, 역사 등
정호정 (2013: 238-239) 번역자 연구 주제 분류	TR1	직업으로서의 번역, 사회적 번역현황, 번역사에 대한 인식
	TR2	번역사 윤리, 번역사 역할, 번역사 파워 및 지위
	TR3	번역 능력, 창의성, 텍스트 이해 능력, 문화 능력
이항 (2011: 351-352) 번역학의 12개 연구 분야	번역의 역사	번역자의 배경, 번역자와 출판인, 편집자와의 관계, 번역자의 번역 동기와 번역 활동상
	번역 윤리	실무 윤리 규정에 대한 연구, 번역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연구
	번역 과정	전문 번역사들의 실제 작업 생활과 작업 조건에 대한 연구, 작업장 연구, 역자 서문, 역자 후기, 역주 등 번역자들이 쓴 에세이 비망록, 번역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한 연구
	번역 직업론	각국의 전문 번역사 협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 현재 각국 번역사 협회의 현황에 대한 연구

이에 따라 번역자 연구 주제의 분류 기준을 표<2>와 같이 마련하였다. 우선 체스터만의 틀을 바탕으로 인지(TA), 사회(TB), 문화(TC)의 세 맥락으로 나

는 뒤에 각 맥락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인지적 맥락 연구는 첫째, 번역자 문체, 둘째, 번역자 개입 및 번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셋째, 번역자 감정과 태도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맥락 연구는 첫째, 직업으로서의 번역자, 둘째, 번역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셋째, 번역자의 자기 이미지 연구로 나누었으며, 이는 지위, 보수, 작업 환경, 아비투스 등 번역자를 둘러싼 환경, 번역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 그리고 에세이, 인터뷰, 역자 후기 등 번역자 담론의 세 방향에서 사회학적 번역자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체스터만의 지적(2009: 16-17)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맥락 연구는 첫째, 역사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 둘째, 번역자 윤리 및 책임과 권리, 셋째, 불가시성과 젠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 본 연구의 연구 주제 분류 기준

맥락	세부 내용
인지(TA)	TA1: 번역자 문체
	TA2: 번역자 개입 및 번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TA3: 번역자의 감정과 태도
사회(TB)	TB1: 직업으로서의 번역자 연구 (지위, 역할, 만족도, 전문성, 작업 여건, 주변 주체와의 관계, 아비투스 등)
	TB2: 사회적 인식
	TB3: 자기 이미지
문화(TC)	TC1: 역사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 (번역자의 동기, 배경, 활동상, 번역론, 역할 등)
	TC2: 번역자 윤리, 책임과 권리
	TC3: 번역자 불가시성, 젠더

연구 방법의 분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김혜림(2013: 100)의 연구 방법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김혜림은 통번역학 연구 동향을 고찰하기 위해 연구 방법을 사례, 문헌, 고찰, 기술, 조사, 실험 연구로 나누고, 이 중 두 방법 이상을 병행한 연구를 중복으로 둔 바 있다. 사례 연구는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 문헌 연구는 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실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고찰 연구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 기술 연구는 기술론적 접근의 연구,

조사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연구, 실험 연구는 실험을 진행한 연구를 말한다.

〈표 3〉 김혜림(2013:100)의 연구 방법 분류 기준

사례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문헌	문헌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고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
기술	기술문적 접근으로서의 연구
조사	설문조사와 인터뷰 기반 연구
실험	실험을 진행한 연구
중복	두 방법론 이상 병행한 연구

본 연구는 김혜림의 연구 방법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분류 작업에서 주관적 판단의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분석 대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 연구는 기준 틀에서 제외하였으며, 사례, 문헌, 고찰, 조사, 실험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다. 사례 연구는 번역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 문헌 연구는 문헌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연구, 고찰 연구는 번역 텍스트와 문헌을 제외한 기타 자료, 예를 들어 역자 후기, 인터뷰 기사 등의 결텍스트와 번역자를 다룬 소설, 고문서, 서지 자료, 사전, 배경 자료 등 여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 조사 연구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연구, 실험 연구는 TAP 등의 실험을 진행한 연구를 말하며, 이 중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한 경우에는 중복 연구로 분류하였다.

〈표 4〉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분류 기준

사례	번역 텍스트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
문헌	문헌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고찰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
조사	설문조사와 인터뷰 기반 연구
실험	TAP 등 실험을 진행한 연구
중복	두 방법론 이상 병행한 연구

### 3. 분석 결과

#### 3.1 주제에 따른 분류

분석 대상 논문을 연구 주제와 방법에 따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연도에 따라 국내외 학술지의 번역자 연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 연도별 연구 논문 현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번역학연구				1		1	1	1	1	2			6	1	4		2	20
통역과 번역				1	1					1			3	1	2	2	2	13
통번역학연구									1	1	2	1		1			1	7
국내 합계				2	1	1	1	1	2	4	2	1	9	3	6	2	5	40
Babel			1				1	1	1		1		1	1		1	1	9
Target						1	1			3	1	1			2	6	2	17
Perspectives		1		2		1		1		3			1				1	10
Translator	1								1		3	1	2			1		9
Meta			1					2	2	1		2	1	4	1			14
해외 합계	1	1	2	2		2	2	4	4	7	5	4	5	5	3	8	4	59

연도별로 보면 급격한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지만, 2010년 이후 번역자 연구 논문이 조금 더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전체 논문의 70%(40편 중 28편), 해외에서는 58%(59편 중 34편)의 논문이 2010년 이후 발간되었다. 학술지별로 보면 국내에서는 『번역학연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번역자 연구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역과 번역』에서 많이 발간되었다. 해외에서는 *Target*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Meta*에서 많이 발간되었으며, 다른 학술지의 편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 번역자 연구 논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제에 따른 분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

	TA1	TA2	TA3	TB1	TB2	TB3	TC1	TC2	TC3
번역학연구	3	2		4		2	5	1	3
통역과 번역	1	2		4	2		4		
통번역학연구		1		2	1		1		2
<b>국내 합계 (%)</b>	<b>4 (10%)</b>	<b>5 (12%)</b>		<b>10 (24%)</b>	<b>3 (8%)</b>	<b>2 (5%)</b>	<b>10 (24%)</b>	<b>1 (2.5%)</b>	<b>5 (12%)</b>
Babel		3		1			5		
Target	3	6	1	5	1		1		
Perspectives		3		1			5		
Translator	1			4	2		1	1	
Meta	2	4		5		1		2	
<b>해외 합계 (%)</b>	<b>6 (10%)</b>	<b>16 (27%)</b>	<b>1 (2%)</b>	<b>16 (27%)</b>	<b>3 (5%)</b>	<b>1 (2%)</b>	<b>14 (24%)</b>	<b>1 (2%)</b>	

주제별로 보면 국내에서는 TB1과 TC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 맥락에서 직업과 관련된 번역자 연구,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TA2와 TB1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인지적 맥락에서 번역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와 직업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국내와 해외의 번역자 연구 주제를 비교해보면 사회적 맥락의 연구(TB1)는 국내 24%, 해외 27%, 역사적 맥락의 연구(TC1)는 국내와 해외 모두 24%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적 맥락의 연구(TA2)는 국내 12%, 해외 27%로,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구 주제를 연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 연구 주제에 따른 연도별 국내외 연구 현황

국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해외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A1										1		1	1	1	1			TA1								1	1	1	1	1	1	2				
TA2			1	1						1	1							TA2		1						1	1	3	3	1	1	3	2	1		
TA3																		TA3							1											
합계			1	1						1	2		1	2	1			합계		1					2	2	1	4	4	1	2	3	4	1		
TB1			1							1		1	1	3	3			TB1		1	1	1	1			1	1	2	1	3	1	1	3	2		
TB2													1					TB2									1	1								
TB3													1	1				TB3								1										
합계			1							1		3	2	3	1	4		합계		1	1	1			2	1	3	1	3	1	1	4	2			
TC1					1	1		1	1	1		3	1	1		1		TC1	1			1	1		2	1	2	2		1	2				1	
TC2												1						TC2		1																
TC3								1	2		1	1						TC3																		
합계					1	1	1	1	2	1	1	5	1	1	1	1		합계	1	1		1	1		2	1	2	2		1	2					1

국내에서는 번역자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의 연구(TB1)와 역사적 맥락에서의 번역자 연구(TC1)가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의 연구(TC1)와 번역자의 결정 과정과 관련된 인지적 맥락의 연구(TA2)가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지적 맥락의 연구 중에서 번역자 문체 연구(TA1)는 국내의 연구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번역자 개입과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는 연구(TA2)는 해외에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TA2 연구의 절반이 번역자 개입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이고 나머지 절반이 번역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는 연구로 판단되었으나,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한 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모두 번역자 개입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회적 맥락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두 번역자 직업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번역자의 사회적 인식이나 자기 이미지 연구가 2012년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연구의 경우 TB2와 TB3에 해당되는 다섯 편의 연구 중 네 편이 한 명의 연구자(김영신 2012a, b, 2013, 2015)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이었다. 번역자의 사회적 인식과 자기 이미지 연구가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 연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문화적 맥락의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가 국내외 모두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며, 역사적 맥락에서 번역자를 다루는 연구는 국내외 모두 대부분 문헌을 중심으로 개인 번역자의 번역 성과와 번역론을 살펴보고 있었다. 저명한 개인 번역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번역자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sup>2)</sup>.

2) 이와 같은 국내 연구로는 일본문학 세계화에서 번역자의 역할을 살펴본 이형진·황선혜(2008), 근대기독교 출판번역사에서 외국인선교사의 비중을 통해 번역주체를 살펴본 최효은(2016) 등을 볼 수 있었으며, 해외 연구로는 중세 아랍 번역자들의 번역 작업과 태도, 목적 등을 살펴본 파이그(Faig 2000), 19세기 말 번역자 아비투스를 살펴본 울프(Wolf 2013) 등을 볼 수 있었다.

### 3.2 방법에 따른 분류

이제 연구 방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결과

	사례	정량	문헌	고찰	조사	실험	계	중복	
								중복	%
번역학연구	12	2	1	6	2		21	1	5.2%
통역과 번역	4	2	5	2	3		14	1	8.3%
통번역학연구	1		2	4			7	-	0%
<b>국내 합계 (%)</b>	<b>17 (40%)</b>	<b>4 (9%)</b>	<b>8 (19%)</b>	<b>12 (28%)</b>	<b>5 (11%)</b>		<b>42 (100%)</b>	<b>2</b>	<b>-</b>
Babel	5	1	6	1	1		13	3	37.5%
Target	10	2	2	6	6		24	5	29.4%
Perspectives	3		5	2	2	1	13	2	20%
Translator	2	1	1	5	3		11	2	22.2%
Meta	6	3	2	3	5		16	2	14.2%
<b>해외 합계 (%)</b>	<b>26 (33%)</b>	<b>7 (9%)</b>	<b>16 (20%)</b>	<b>17 (22%)</b>	<b>17 (22%)</b>	<b>1 (1%)</b>	<b>77 (100%)</b>	<b>14</b>	<b>-</b>

중복 연구의 경우는 해당 학술지에서 발간된 번역자 연구 논문의 전체 편수 중에서 중복 연구에 해당되는 비중을 따로 계산하여 중복 연구 논문의 편수와 비중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연구에서는 중복 연구의 비중이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학연구』와 『통역과 번역』에서 각기 한 편 나타났으며 『통번역학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해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복 연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 번역자 연구의 경우 여러 데이터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중복 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방법을 중복 표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례 연구와 조사 연구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례와 조사 연구 방법 모두에 각각 표기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 국내외 모두 사례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내 연구 40%, 해외 연구 33%). 이를 통해 국내외의 번역자 연구에서 모두 번역 텍스트의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 번역 텍스트 분석에 의존하는 비중이 해외 연구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나, 정량 연구의 비중은 국내외 연구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헌 연구의 경우에도 국내외 연구에 활용되는 정도에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의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고찰 연구와 조사 연구의 비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는 조사 연구(11%)보다 역자 후기, 기사, 서지 자료 등 여러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고찰 연구(28%)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국내의 번역자 연구는 번역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료 조사를 통한 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고찰 연구(22%)와 조사 연구(22%)의 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번역자의 직·간접적인 목소리가 고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방법을 연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연구 방법에 따른 연도별 현황

국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례				2	1(1)	1	1	1	1	3			3(1)		3(1)	1(1)	
문헌											1	1	3	1	1		1
고찰							1	1		1	1		2	2	1	1	2
조사				1									1		1		2
실험																	
중복				1			1										

  

해외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례							1	2(1)	1(1)	4(2)	2	3(1)	1	2(1)	3(2)	6	1
문헌	1		1	2		2		2	1		2		1	3	1		
고찰		1	1						1	3	2		1		1	3	2
조사							1		2	1	1	1	3	1	2	2	3
실험										1							
중복									1	1	3		1	1	3	3	1

연도에 따라 연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전에는 국내 연구가 해외 연구보다 사례 연구의 비중이 좀 더 높다. 국내에서는 사례 연구의 절반 이상이 2010년 이전에 나온 반면(58%, 17편 중 10편), 해외에서는 절반 이하이다(38%, 26편 중 10편). 그러나 사례 연구 중에서 정량 연구<sup>3)</sup>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좀 더 먼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정량 연구 중 한 편만이 2010년 이전에 나온 반면 해외 연구의 경우에는 절반(네 편)이 2010년 이전

3) 괄호 안에 표기된 수치

연구에 해당된다. 문헌 연구의 경우 해외에서는 절반 이상이 2010년 이전에 발간되었으나(68%, 16편 중 11편)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에 꾸준히 나타났다. 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2012년 이후, 해외에서는 2008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국내외 번역자 연구 방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중복 연구의 흐름에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전에 두 편의 중복 연구가 나타나고<sup>4)</sup> 그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해외에서는 2008년 이후 중복 연구가 꾸준히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해외의 번역자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 3.3 주제에 따른 방법

연구 주제에 따라 어떤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0〉 주제에 따른 방법 분류

해외	사례	문헌	고찰	조사	실험	중복	국내	사례	문헌	고찰	조사	실험	중복
TA1	6(4)		2	1		2	TA1	4(3)					
TA2	14(2)	3	3	3	1	5	TA2	5(1)					
TA3				1			TA3						
TB1	3	3	3	11		3	TB1	2	1	3	5		1
TB2			3				TB2			3			
TB3			1	1		1	TB3			2			
TC1	3(1)	11	4			3	TC1	2	6	3			1
TC2			1				TC2	1					
TC3							TC3	3	1	1			

연구 주제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지적 맥락의 연구에서 나타난 국내외 연구의 차이점이다. 국내에서는 인지적

4) Carolyne(2003)은 텍스트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19명), 번역자 인터뷰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김효중(2006)은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 번역 분석 외에 번역 대상 작품 선정과 번역 태도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중심은 텍스트 분석에 있고 설문조사나 인터뷰, 자료 조사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반면 해외의 중복 연구에서는 번역 텍스트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결텍스트 분석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맥락의 번역자 연구에서 사례 연구만 나타났다. 번역자 문체나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번역 텍스트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례 외에도 문헌, 고찰, 조사, 실험 연구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으며, TA2의 연구에서 중복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번역자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들여다보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맥락의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는 TB1에만 조사 연구가 활용되고 있다. 번역자 직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직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조사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 맥락 연구에서 조사 연구가 활용된 비중은 31%(16편 중 5편)이나 해외 연구에서는 44%(25편 중 12편)로, 국내보다 해외의 사회적 맥락 연구에서 조사 연구의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문화적 맥락의 연구를 보면, 해외에서는 문헌 연구의 방법이 가장 자주 활용되고 있었다(57%, 19편 중 11편). 반면 국내에서는 문헌 연구(41%, 17편 중 7편)와 사례 연구(35%, 17편 중 6편)의 비중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번역 텍스트와 문헌이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 4. 논의 및 제언

### 4.1 연구 주제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국내 번역자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번역자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번역자를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해외에서는 번역자 직업과 관련된 연구와 함께 인지적 맥락에서 번역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인지적 맥락의 연구에서는 번역자의 문체(류현주 2009; 조의연 2012; 유한내 2014; 이창수 2015), 번역자의 개입 양상(김영신 2003; 정정립 2008; 홍정민 2014)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다. 국내의 번역자 연구에서는

번역자가 번역 텍스트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 즉 번역자가 내린 결정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해외의 인지적 맥락 연구에서는 번역자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를 넘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베커(Becher 2011)는 변이(shift)를 만들어내는 번역자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번역자가 연결사를 ‘언제’ 그리고 ‘왜’ 추가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존스(Jones 2014)는 번역자가 방언을 번역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번역 결과물을 분석하여 표준어로 바꾸거나 도착 문화의 방언으로 다시 바꾸는 두 가지 전략을 발견한 뒤, 이러한 전략이 나타난 이유도 살펴보기 위해 결텍스트와 번역자 코멘트 분석, 두 명의 번역자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국내에서도 번역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넘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뫼(2009: 23)이 지적한 것처럼 번역자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선택의 이유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번역자에 초점을 맞춰 번역 현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지니는 장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내의 경우 번역자를 포함하여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요인, 예를 들어 텍스트 기능과 목적, 주제 분야, 장르, 번역자, 대상 독자, 독자 반응 등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정호정 2004; Yang 2009), 번역자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놓고 좁게는 번역자의 개인적인 특징에서부터 넓게는 번역자의 사회적, 제도적 위치에 이르기까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탐색을 시도할 수 있겠다.

해외에서는 번역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보는데 있어서 번역자의 성격(Severine 2009), 번역자의 글쓰기 경험과 직업, 개인적인 배경(Davies 2007; Shlomit 2009; Liao 2011; Xu 2012; Buzelin 2014; Xu 2015b) 등 번역자의 개인적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야스칼레이넨(Jääskeläinen 2016: 95)은 번역자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번역자가 번역할 텍스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등 번역자의 감정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번역자의 선택 이유를 텍스트 장르나 대상 독자 등을 넘어 번역자의 성격이나 감정 등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또

한 해외 연구에서는 번역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 예를 들어 조직과 제도에서 번역자가 지닌 위치(Mei 2011; Stefaniak 2013; Xu 2015a)와 번역 전통과 세계화의 영향(Liang 2016) 등 넓은 범위에서도 탐색하고 있었다.

사회적 맥락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두 번역자 직업과 관련된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뉴스 번역의 참여 주체와 역할, 상호작용(홍정민 2012), 번역자의 지위(홍정민 2014), 더빙 번역 과정에서 연출가가 지니는 번역자로서의 역할(최수연 2014), 홍보영상 번역에서 번역자의 작업 절차나 기대 역할(신지선·김효진 2016), 비전공자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 현황과 직무(박지영 2016), 즉 번역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해외에서도 번역자 직업 지위(Dam & Zethsen 2008, 2010, 2011), 직업상황(Djovcos 2014), 전문성(Lafeber 2012), 사회적 변화와 번역자 역할(Hlavac 2015), 광고 번역에서의 작업 절차와 번역자의 역할, 사회적 관계(Vandal-Sirois 2016) 등의 문제가 다루어져왔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도 많지는 않았으나 번역자의 직업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다(Liu 2013; Hubscher-Davidson 2016). 리우(2013: 54)는 번역학계에서 고객 만족도에는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번역자 만족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며, 번역자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역자 후기를 분석하면서 번역자의 심경과 태도 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김순미 2014), 번역자의 감정을 중심에 놓고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번역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더하여,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번역자가 지니는 감정에 대해 좀 더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 4.2 연구 방법

인지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주로 번역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번역 텍스트 외에도 고문서와 서지자료 등의 여러 결텍스트,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번역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 더 넓



은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비슨(2009)은 번역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번역자의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TAP 실험을 진행하고 번역 결과물 분석도 실행하였으며 번역 과정 관찰 및 실험 이후의 설문조사, 성격 테스트, 번역물 평가까지 여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있었다. 번역자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번역 결과물만 활용한다면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인지적 맥락의 번역자 연구에서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의 연구에서 조사 연구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사회적 맥락 연구에서도 설문 조사가 사용되고 있으나 조사 규모가 작은 편이다. 홍정민(2014)은 번역자와 기자를 포함해 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박지영(2016)은 26명의 비전공 통번역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뒤 23명에게 답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설문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Lafeber 2012; Liu 2013; Djovcoš 2014; Hubscher-Davidson 2016). 번역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 연구는 필요하지만 개인 연구자에게 버거운 연구일 수 있으므로 여러 연구자가 힘을 합쳐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터뷰 중심의 번역자 연구는 많지 않다(홍정민 2012; 신지선·김효진 2016). 홍정민(2012)은 뉴스 번역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방식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번역 조직 구성과 구성원, 전반적인 업무 흐름과 상호작용, 권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신지선·김효진(2016)은 프로그램 연출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번역자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반면 해외의 번역자 연구에서는 인터뷰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클레어(Claire 2006)는 26명의 번역자를 대상으로 반구조 방식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결과의 정량 분석을 통해 번역자의 자기수정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로버트(Robert 2012)는 번역자를 둘러싼 여러 관련 주체, 즉 박물관 큐레이터와 스태프를 대상으로 단체 인터뷰를 실시하여 번역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번역 텍스트나 결텍스트, 설문조사 결과를 인터뷰 결과를 통해 설명하거나 보완하려는 연구도 있었다. 존스(2014)는 번역텍스트 분석 결과를 두 명의 번역

자와 인터뷰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반달-시로이스(Vandal-Sirois 2016)는 광고 번역자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사례를 직접 관찰한 뒤 인터뷰를 통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리앙(Liang 2016)은 번역 텍스트 분석을 통해 번역자 아비투스를 탐색하고 이를 사회적 배경 조사와 2명의 번역자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출발점에서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 앤조(Annjo 2015)는 재번역에 나타난 번역자 목소리를 연구하기 위해 분석 대상 텍스트를 번역한 두 명의 번역자에게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여 누가 얼마나 번역 작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기존에 번역된 작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에서 출발하여 번역 텍스트와 곁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한편 댐과 체첸(2010)은 인터뷰는 아니지만 번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말미에 놓인 자유 답변을 모아서 번역자의 낮은 지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후속 연구의 발판을 찾기도 하였다. 국내의 번역자 연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의 여러 단계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국내의 번역 학술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번역자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번역자 연구를 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과 방법에서 크게 세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학위 논문과 출판물,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등 기타 학술지 논문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좁은 범위의 번역 주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번역자 외에 번역자를 둘러싼 관련 주체에 관한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별도의 메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더 정교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번역자 연구는 아직 정교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스터만(2009: 19)이 번역자 연구의 지도를 제안하기는 했으나, 어떤 연구가 포함될 수 있을지 대강의 윤곽을 그렸을 뿐이다. 울프(Wolf 2012: 130)도 체스터만이 그려낸 번역자 연구의 지도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를 참조하고 여러 번역자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번역자 연구의 분류틀을 만들어보고자 시도하였으나, 더 정교한 분석틀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인지적 맥락의 연구 중에서 번역자 태도, 감정과 관련된 연구나 번역자 윤리, 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연구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아직 완성된 분류틀이라 할 수 없다. 앞으로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지 살펴보면서 분류틀을 더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번역자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가 있다. 번역자 연구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번역학에서 ‘번역주체’ 연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강지혜 2010)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해외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번역자 문체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Baker 2000; Saldanha 2011), 번역자 연구를 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Dimitriu 2009; Munday 2013, 2014), 번역자 직업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Hostench 2010) 살펴보는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번역자 연구가 펼쳐진 많은 갈래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논의하는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수정 (2015) 「통번역산업의 시장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7(2): 113-133.
- 강지혜 (2010) 「번역학에서 ‘번역주체’ 연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2(2): 3-36.
- 김순미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김훈필 (2015) 「국내 공공번역 실태와 표준화 현주소」, 『통역과 번역』 17(2): 1-25.
- 곽중철, 박지영 (2013) 「번역행위자 간 소통 문제 연구: 한국외대 통번역센터에 대한 클레임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3): 1-22.
- 박미정 (2013) 「번역 학습자의 ‘voice’ 선택과 개입: 범용텍스트 ‘전문용어’ 일한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99-125.
- 신지선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2): 75-101.
- 이상빈 (2013) 「학부 번역 전공자의 교정 교열(revision)에 대한 사례 연구 - 번역역량에 따른 비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14(5): 169-194.
- 이상원, 이향 (2004)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연구 - 편집자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번역학연구』 5(1): 133-144.
- 이승재 외 (2001)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2): 57-107.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15: 341-362.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 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 - 1990년 이후 국내외 대표 학술지 분석」, 『통역과 번역』 15(1): 235-256.
- Baker, Mona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Dam, Helle V. and Zethsen, Karen Korning (2009) ‘Translation Studies: Focus on the Translator’, *Hermes* 42: 7-12.
- Dimitriu, Rodica (2009) ‘Translators’ Prefaces as Documentary Sources for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17(3): 193-206.
- Fernandez, Francesc and Zabalbeascoa, Patrick (2012) ‘Developing Trainee Translators’ Strategic Subcompetence Through Metacognitive Questionnaires’, *Meta* 57(3): 740-762.
- Gerhard, Budin (2016) ‘Terminology as a Key Competence for Translator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0(4): 253-282.
- Holmes, James S.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New York: Routledge, 172-185.
- Hostench, Olga Torres (2010) ‘An Overview of the Research on Occupational Integration in Translation Studies According to a Map of Occupational Integration Concepts’, *Perspectives* 18(1): 23-38.
- Jääskeläinen, Riitta (2016) ‘Quality and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in Ricardo Muñoz Martín (ed) *Reembedding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89-106.
- Liping, Bai (2016) ‘Professionals and Translation in a “Literary Translation System”’, *Babel* 62(4): 552-572.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thi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Munday, Jeremy (2013) ‘The Role of Archival and Manuscript Research in the Investigation of Translator Research-making’, *Target* 25(1): 125-139.
- Munday, Jeremy (2014) ‘Using Primary Sources to Produce a Microhistory of Translation and Translator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cerns’, *The Translator* 20(1): 64-80.
- Pym, Anthony (2007) ‘Cross-Cultural Networking: Translators in the French-German Network of Petites Revue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Meta* 52(4): 744-762.
- Pym, Anthony (2009) ‘Humanizing Translation History’, *Hermes* 42: 23-48.
- Pym, Anthony (2014) ‘Translator Associations - from Gatekeepers to Communities’, *Target* 26(3): 466-491.
- Saldanha, Gabriela (2011) ‘Translator Styl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he Translator* 17(1): 25-50.
- Williams, Jenny and Chesterman, Andrew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olf, Michaela (2012)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its “Activist Tur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29-143.

## 분석대상 논문

- 김동미 (2007) 「문학작품의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화용·통사론적 특징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37-60.
- 김동미 (2009)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번역학연구』 10(1): 7-32.
- 김영신 (2012a)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 -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63-78.
- 김영신 (2012b)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 번역사회학적 관점」, 『번역학연구』 13(4): 7-27.
- 김영신 (2013) 「번역을 이해하는 은유, 번역을 설명하는 은유 - 국내 번역가들은 번역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번역학연구』 14(4): 37-59.
- 김순미 (2014)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15(3): 33-81.
- 김순미 (2016) 「번역가의 ‘전문성’ 개념 변화의 필요성 -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권 특별호: 1-29.
- 김효중 (2005) 「윤대웅의 릴케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6(1): 19-44.
- 김효중 (2006)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7(1): 67-85.
- 류현주 (2009) 「번역투와 번역자투」, 『번역학연구』 10(2): 7-22.
- 박지영 (2016)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 현황과 직무 분석 - 통번역 비전문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127-152.
- 손지봉 (2012a) 「량치차오의 번역론에 나타난 국가번역사업 고찰」, 『통역과 번역』 14(2): 79-102.
- 손지봉 (2012b) 「옌푸(嚴復)의 번역이론 ‘이(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번역론」, 『번역학연구』 13(2): 89-111.
- 손지봉 (2013) 「린수의 소설번역에 대한 평가」, 『통역과 번역』 15(2): 101-129.
- 손지봉 (2014) 「루쉰의 번역활동과 번역방법 연구 - 경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2): 59-85.
- 신지선, 김효진 (2016) 「관광 홍보에서 영상의 중요성에 따른 번역사의 역할 고찰」, 『통역과 번역』 18(3): 55-76.
- 이상원 (2012) 「출판 번역에서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교정

- 교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1): 115-135.
- 이창수 (2015) 「컴퓨터 문체 분석법을 활용한 번역가 문체 연구」, 『통역과 번역』 17(3): 119-137.
- 이형진, 황선혜 (2008) 「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가 사례연구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소설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291-313.
- 이혜승 (2012) 「『러시아문학강의』에 반영된 나보코프의 번역관」, 『통역과 번역』 14(2): 215-232.
-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143-173.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유한내 (2014)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자별 문체 분석 -선택적 변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135-153.
- 유한내 (2016) 「통번역사 교육과 취업의 방향 제시를 위한 방안: 채용공고를 통해서」, 『통번역학연구』 20(3): 51-75.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29.
- 정정림 (2008)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일-한 더빙 번역에 나타난 번역자의 개입」, 『통번역학연구』 11(2): 119-133.
- 정호정 (2004) 「동일한 번역언어, 다른 우선순위? -한영/영한 번역과정에서의 번역사의 고려사항」,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1): 201-216.
- 조의연 (2012) 「번역가의 문체선택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텍스트 비교 분석」, 『번역학연구』 13(5): 197-221.
- 최수연 (2014) 「영상번역의 ‘혼종적 번역가’(hybrid translator)로서의 연출가 -더빙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245-286.
- 최효은 (2016)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 조사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2): 191-212.
- 홍정민 (2012) 「한국의 뉴스 번역 참여자 간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게이트키퍼 수정 모델 -슈메이커의 모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269-301.
- 홍정민 (2014a) 「한국 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와 기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 연구」,

- 『통역과 번역』 16(1): 253-294.
- 홍정민 (2014b) 「한영 뉴스 번역자의 텍스트 개입 양상에 관한 고찰」, 『번역학 연구』 15(1): 365-413.
- Aijun, He (2008) 'Red China, Red Translation: An Introduction to Fang Huawen and his Translation Theory', *Babel* 54(2): 145-158.
- Anjjo, K. Greenall (2015) 'Translators' Voices in Norwegian Retranlations of Bob Dylan's Songs', *Target* 27(1): 40-57.
- Baker, Mona (2010)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War Zone: Narrated and Narrators', *The Translator* 16(2): 197-222.
- Becher, Viktor (2011) 'When and Why do Translators Add Connectives? A Corpus-based Study', *Target* 23(1): 26-47.
- Beebee, Thomas O. (2010) 'Shoot the Transtraitor!: The Translator as Homo Sacer in Fiction and Reality', *The Translator* 16(2): 295-313.
- Bettina, Nadia Rodriguez (2010) 'Metaphors for the Translator: The Long Road Travelled from Craftsmen to Experts, Networkers and Service Provider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3(2): 213-228.
- Buzelin, Hélène (2014) 'How Devoted can Translators Be? Revisiting the Subservience Hypothesis', *Target* 26(1): 63-97.
- Calvani, Alessandr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er and Translator: The Case History of Ugo Foscolo', *Babel* 59(1): 76-92.
- Carolyne, Scheer (2003) 'Translators and Revisers: Toward More Collabor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5(2): 3-28.
- Chen, Ya-Mei (2011) 'The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 119-144.
- Cheng, Mei (2003) 'Xuan Zang's Translation Practice', *Perspectives* 11(1): 54-62.
- Choi, Jungwha and Lim, Hyang-Ok (2002) 'The Status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Korea', *Meta* 47(4): 627-635.
- Chu, Dongwei (2010) 'Two Basic Patterns of Translator Activati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1): 303-324.



- Claire, Yi-yi Shih (2006) 'Revision from Translators' Point of View: An Interview Study', *Target* 18(2): 295-312.
- Coillie, Jan Van (2008) 'The Translator's New Clothes Translating the Dual Audience in Andersen's "The Emperor's New Clothes"', *Meta* 53(3): 549-568.
- Dam, Helle V. and Zethsen, Karen Korning (2008) 'Translator Status', *The Translator* 14(1): 71-96.
- Dam, Helle V. and Zethsen, Karen Korning (2010) 'Translator Status: Helpers and Opponents in the Ongoing Battle of an Emerging Profession', *Target* 22(2): 194-211.
- Dam, Helle V. and Zethsen, Karen Korning (2011) 'The Status of Professional Business Translators on the Danish Market: A Comparative Study of Company, Agency and Freelance Translators', *Meta* 56(4): 976-997.
- Davies, Eirlys E. (2007) 'Shifting Voices: A Comparison of Two Novelists' Translations of a Third', *Meta* 52(3): 450-462.
- Didac, Pujol (2012) 'Josep Maria de Sagarra, a Catalan Translator of Shakespeare's Plays', *Babel* 58(1): 95-108.
- Dimitriu, Rodica (2009) 'Translators' Prefaces as Documentary Sources for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17(3): 193-206.
- Djovcoš, Martin (2014) 'Translators and Social Context: The Case Study of Slovakia', *Meta* 59(2): 330-359.
- Dolmaya, Julie McDonough (2012) 'Analyzing the Crowdsourcing Model and its Impact on Public Perceptions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 18(2): 167-191.
- Dr Ebbe, Klitgård (2009) 'Translation as Transformation: Two Translators of Chaucer in 19th Century Denmark', *Perspectives* 16(3-4): 133-141.
- Ehrlich, Shlomit (2009) 'Are Self-translators like Other Translators?', *Perspectives* 17(4): 243-255.
- Faiq, Said (2000) 'Culture and the Medieval Arab Translator', *Perspectives* 8(2): 89-95.

- Feng, Zongxin (2003) 'Literary Discourse and the Translator's Role', *Perspectives* 11(1): 45-53.
- Fuertes-Olivera, Pedro A., Montero-Martinez, Silvia, and García de Quesada, Mercede (2001) 'The Translator as 'Language Planner': Syntactic Calquing in an English-Spanish Transl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Meta* 46(4): 687-698.
- Ghazala, Hasan (2002) 'The Translator' Dilemma with Bias', *Babel* 48(2): 147-162.
- Ghazoul, Ferial J. (2015) 'The Arab Translator as Hero', *The Translator* 21(2): 154-172.
- Hlavac, Jim (2015) 'Pre- and Post-conflict Language Designations and Language Policies: Re-configuration of Professional Norms amongst Translators of the Bosnian, Croatian and Serbian Languages', *Target* 27(2): 238-272.
- Hou, Yu (2013) 'A Corpus-Based Study of Nominalization as a Feature of Translator's Style (Based on the English Versions of Hong Lou Meng)', *Meta* 58(3): 556-573.
- Hubscher-Davidson, Séverine (2009) 'Personal Diversity and Diverse Personalities in Translation: A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s* 17(3): 175-192.
- Hubscher-Davidson, Séverine (2016)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Translation: A Study of Professional Translators', *Target* 28(1): 132-157.
- Jones, Francis R. (2014) 'Poetry Translators and Regional Vernacular Voice: Belli's Romanesco Sonnets in English and Scots', *Target* 26(1): 32-62.
- Kim, Young Shin (2003) 'Translator's Mediation in Ideological Issues - A Critical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4(2): 175-190.
- Kim, Young Shin (2015) 'How is the Translator Portrayed in Fictions? -With a Reference to Letter to a Young Lady in Pari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7(2): 211-224.

- Koskinen, Kaisa and Paloposki, Outi (2015) 'Anxieties of Influence: The Voice of the First Translator in Retranslation', *Target* 27(1): 25-39.
- Kristiina, Taivalkoski-Shilov (2015) 'Friday in Finnish: A Character's and (Re)translators' Voices in six Finnish Retranslations of Daniel Defoe's Robinson Crusoe', *Target* 27(1): 58-74.
- Lafeber, Anne (2012) 'Translation Skills and Knowledge - Preliminary Findings of a Survey of Translators and Revisers Working a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Meta* 57(1): 108-131.
- Laygues, Arnaud (2001) 'Death of a Ghost: A Case Study of Ethics in Cross-generation Relations between Translators', *The Translator* 7(2): 169-183.
- Liang, Wayne Wen-chun (2016) 'Translators' Behaviors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 A Parallel Corpus Study of Fantasy Fiction Translation in Taiwan', *Babel* 62(1): 39-66.
- Liao, Min-Hsiu (2011) 'Interaction in the Genre of Popular Science: Writer, Translator and Reader', *The Translator* 17(2): 349-368.
- Lintao, Qi (2016) 'Agents of Latin: An Archival Research on Clement Egerton's English Translation of Jin Ping Mei', *Target* 28(1): 42-60.
- Liu, Fung-Ming (2013) 'Revisiting the Translator's Visibility: Does Visibility Bring Rewards?', *Meta* 58(1): 25-57.
- Luo, Xuanmin (2005) 'Ideology and Literary Translation: Liang Quchao', *Perspectives* 13(3): 178-187.
- Ma, Hui-juan (2007) 'Expl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Jin Di's Translation Theory and Eugene A. Nida's Translation Theory'. *Babel* 53(2): 98-111.
- Mackintosh, Fiona J. (2010) 'Alejandra Pizarnik as Translator', *The Translator* 16(1): 43-66.
- Munday, Jeremy (2015) 'Engagement and Graduation Resources as Markers of Translator/Interpreter Positioning', *Target* 27(3): 406-421.
- Neather, Robert (2012) 'Non-Expert' Translators in a Professional Community: Identity, Anxiety and Perceptions of Translator Expertise in the Chinese

- Museum Community', *The Translator* 18(2): 245-268.
- Ren Xiaofei, Feng Qinghua, and Wang Nan (2010) 'A Translator on the Target Stage: Ying Ruocheng's Theatre Translation', *Babel* 56(4): 363-378.
- Sela-Sheffy, Rakefet (2005) 'How to Be a (Recognized) Translator: Rethinking Habitus, Norms, and the Field of Translation', *Target* 17(1): 1-26.
- Sela-Sheffy, Rakefet (2008) 'The Translators' Personae: Marketing Translatorial Images as Pursuit of Capital', *Meta* 53(3): 609-622.
- Skibińska, Elżbieta, and Blumczyński, Piotr (2009) 'Polish Metaphorical Perceptions of the Translator and Translation', *Target* 21(1): 30-57.
- Susan, Xu Yun (2015) 'The Translators' Positioning in an Institutional Setting: A Singapore Perspective', *Babel* 61(1): 93-109.
- Vandal-Sirois, Hugo (2016) 'Advertising Translators as Agents of Multicultural Marketing: A Case-study-based Approach', *Perspectives* 24(4): 543-556.
- Venturi, Paola (2009) 'The Translator's Immobility: English Modern Classics in Italy', *Target* 21(2): 333-357.
- Winters, Marion (2007) 'F. Scott Fitzgerald's Die Schönen und Verdammten: A Corpus-based Study of Speech-act Report Verbs as a Feature of Translators' Style', *Meta* 52(3): 412-425.
- Winters, Marion (2009) 'Modal Particles Explained: How Modal Particles Creep into Translations and Reveal Translators' Styles', *Target* 21(1): 74-97.
- Waldinger, Albert (2009) 'Proust as Translator of Ruskin', *Meta* 51(1): 22-31.
- Wolf, Michaela (2013) "'Prompt, at any Time of the Day...": The Emerging Translational Habitus in the Late Habsburg Monarchy', *Meta* 58(3): 504-521.
- Won, Young-Hee (2011) 'Forbidden Fruit?: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nstinct',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2): 183-211.
- Xu, Minhui (2012) 'On Scholar Translators in Literary Translation – A Case Study of Kinkley's Translation of "Biancheng"', *Perspectives* 20(2): 151-163.

- Xu, Minhu and Chu, Chi Yu (2015) 'Translator's Professional Habitus and the Adjacent Discipline', *Target* 27(2): 173-191.
- Xu, Xiumei (2006) "'Style Is the Relationship": A Relevance-theoretic Approach to the Translator's Style', *Babel* 52(4): 334-348.
- Yang, Shizhou (2009) 'Gone with the Wind, Gone with the Translator Influences of Reception Theory on the Formation of a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1(2): 85-110.

[Abstract]

### A Study on Researches Focusing on Human Translators

Kim, Jagy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searches focusing on human translators in domestic and overseas translation studies, in an effort to identify any potential areas and method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99 studies released from 2000 to 2016 at home and abroad were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area and method. Primarily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translator studies suggested by Chesterman (2009: 19), research areas were divided into cognitive, sociological, and cultural. Research methods were grouped based on the type of analysis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stronger attention to factors behind translator decisions and preference for more than two types of data for analysis were observed in overseas translator studies in cognitive context. Studies dealing with translator jobs in sociological context were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but large-scale questionnaire surveys along with interviews were used more actively in overseas translator studies.

▶ Key Words: translator studies, human translators, research area, research method

김자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vandi98@naver.com

관심분야: 경제번역, 은유번역, 번역과정,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